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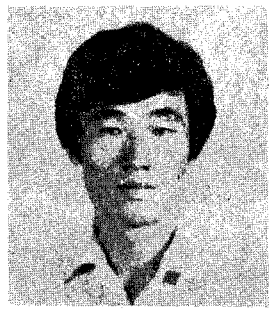
양계산물 소비촉진 협의회 만들어야

이 해 범
선진사료(주) 영업부장/서울농대 축산과졸/
전 대한제당, 흥성사료

현재의 양계업체로서는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방안이 부족하거나 모른다기 보다는 이러한 사실들이 실제로 시행되는 행동시점에 있어서 현실적 바탕을 둔 구체방안이 되기보다 지시적 단속적 행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용두사미의 일이 많았던 것 같다. 양계업은 과거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양적으로만 급격히 팽창되었지 구조적

인 결함을 많이 안고 있었다. 이러한 과도기적 현상은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려고보다 작은 것부터 현실적으로 진행 가능한 방법을 택해 일단 충분히 검토하여 선택한 것은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량소비를 위한 제언이라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소비촉진운동, 조리가공법개선 등) 소비저해요인의 제거방안을 연구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등의 피상적이고 개괄적인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주체와 이익에 관여되는 생산자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산자들의 집단인 제우회, 양계협회가 주도하는 생산자 권익옹호를 위한 기구가 결성되었으면 한다. 결성된 기구가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생산자들은 단기적인 안목의 생각으로 당장의 기대에 부합되는 현상의 기대보다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자세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



소비자 욕구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공급해야

이 택 진
대한사료(주) 생산관리부/
서울농대 축산과졸

“닭고기를 많이 소비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집 같은 경우 애들하고 넉식구 사는데

시장에서 닭을 사면 한마리를 사야 되는데 이걸 누가 다 먹어요? 또 그리고 예전에는 살아있는 닭을 그 죽석에서 잡아서 주었는데 요즘은 죽어있는

닭을 주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쇠고기, 돼지고기는 사먹지?”
“그것은 여태까지 계속 그랬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지만, 닭고기는 죽은 닭을 보면 색깔도 허여멀겁고 지저분해 보여요.”
“그러면 우리집에서는 계란을 하루에 몇개나 먹나?”
“하루에 한 2개내지 3개 정도 먹지요.”
“그걸 어떻게 해서 먹지?”
“아침에 한두개는 애들 후라이해서 먹이고 그 외는 라면 먹을 때 넣고 먹어요.”